실록 · 의궤 오대산 돌아오나…결의안 통과

2월 14일 본회의서 의결, 원봉안처 봉안 정부 촉구

국립 전시관 설립안 제시
월정사 초입 '실록박물관'
국유화 대안으로 부상돼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선왕조실록 · 의궤 오대산 사고본(이하 오대산 사고본)을 월정사로 환지본처하기 위한 국회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대산 사고본의 환지본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2월 14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제안한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위궤 제자리 찾기를 위한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설립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해당 결의안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했던 '오대산 사고본 제자리찾기 촉구 결의안(이광재 의원 등 63인)' · '오대산 사고본 환지본처를 위한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설립 촉구 결의안(이채익 의원 등 31인)'을 병합한 것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2월 10일 전체 회의에서 두 결의안을 병합해 본회의에 상정키로 결의한 바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결의안은 오대산 사고본의 환지본처의 당위성과 이를 위한 방안으로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설립 촉구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오대산 사고본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무단 반출되는 고난을 겪다가 어렵게 국내에 환수됐으나, 원봉안처인 오대산이 아닌 국립고궁박물관에 보관되고 있어 불교계와 강원도민들을 중심으로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 및 의궤의 오대산 봉안'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면서 "국회는 '문화재는 본래 자리에 있을 때 제 기능을 발휘하고 그 가치를 지닌다'는 근원적인 대명제 아래 국립고궁박물관에 보관 중인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가 원봉안처인 오대산에 즉각 봉안되도록 우리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유문화재의 국가관리 원칙'을 고수하는 문화재청과 '오대산 사고본의 환지본처'를 염원하는 불교계와 강원도민의 입장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립기관인 조선왕조실록전시관의 설립 · 운영을 통해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가 본래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 같은 국회 결의에 따라 오대산 사고본 환지본처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월정사 일주문 인근에 왕조실록 · 의궤박물관이 설립된 상태로 월정사가 해당 박물관을 국가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환지본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월정사 역시 해당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부처인 문화재청도 국립전시관 설립에 긍정적이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지난 2월 10일 국회 답변에서 "오대산 사고본이 월정사로 갔을 때 잘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입장 변화가 있었다"며 "국회 결의가 이뤄지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월정사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준 여야 의원들과 뜻을 함께해준 조정래 선생 등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국회 결의안은 민의(民意)를 모으는 과정이었고, 환지본처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행정부처가 이 민의를 수렴해서 실제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 기원 '평화의 불', 도안사 봉안

108평화보궁 도안사, 2월 12일
등화대 점화 및 시원비 제막 봉행

도안사 500여 대중 운집
한반도 평화 정착 기원해
여야 대선 후보들도 축사


이날 행사에서 대중들이 '평화의 불' 사원비를 제막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국민화합, 코로나 극복을 염원하는 '평화의 불'이 108평화보궁 수락산 도안사 등화대에 봉안됐다.

서울 도안사(회주 선묵 혜자)는 2월 12일 도안사 경내에서 등화대(燈火臺) 점화법회 및 시원비(始原碑)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등화대 점화법회 및 시원비 제막식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갈등 해소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세계인들의 어려움을 부처님 가피로 치유하고자 하는 기원의 자리로 마련됐다.

그런 의미에서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前 총무원장 의현 스님을 비롯해 도선사 회주 동광 스님 등 스님들과 서영교 김성환 국회의원, 김선동 前 국회의원, 오승록 노원구청장, 박대섭 국군예비역불자회장 등 500여 대중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 평화의 불 등화대 점화, 평화의 불 시원비 제막, 내빈소개, 경과보고, 등화대 점화 고불문 낭독, 청법가, 점화 법어, 기원사, 축사, 축가, 발원문 낭독,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도안사 회주 선묵 혜자 스님은 고불문을 통해 "108평화보궁 수락산 도안사 등화대에 부처님 탄생성지에서 이운해 온 평화의 불이 정착해 봉안되는 점화법회를 봉행하오니 남북한 갈등상황을 해결하고 평화가 정착되길 발원한다"며 "부처님 평화정신을 이어받아 세세생생 실천하고 정진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의현 스님은 "구법의 길에 있었던 곡절의 아픔과 어려움이 마디마디 서려 있는 '평화의 불'이 평화보궁 수락산 도안사에 안착해 그 빛을 발하고자 등화대에 점화하니, 중생의 안식처로 자리할 더할 나위 없는 환희이자 축복이다"고 법문했다.

도선사 회주 동광 스님은 기원사에서 "부처님 탄생성지에 있는 '평화의 불'을 구법순례의 길을 따라 난관을 극복하고 오늘 이곳 108평화보궁에 무사히 안착하는 법회를 봉행하니 참으로 뜻깊다"라며 "앞으로 청담문도회는 108산사 순례기도회의 신심을 다지고, 53기도도량 순례를 통해 기도원력을 세우고, 108평화순례단을 통해 남북의 평화통일 원력을 담은 평화의 불이 지혜의 불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의불 봉안에서는 대선을 앞둔 여야 각 후보의 축사가 전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김성환 국회의원 대독을 통해 "평화의 불이 계층과 세대, 이념의 대립과 갈등으로 분열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뜨거운 화합의 불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이번 점화법회는 불교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역할을 다짐하고 종교가 사회에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뜻깊은 행사"라며 "다시 한번 불교계가 큰 힘이 되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는 초석을 놓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평화의 불'은 룸비니동산 평화의 호수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자리하고 있는 상징으로 1986년 UN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불이다.

2013년 4월 채화(採火)된 이 불은 네팔 수도 카트만두와 티베트 라싸를 거쳐 한반도까지 봉송됐다. 임진각 평화누리 광장에서의 특별기원법회를 시작으로 평화의댐과 DMZ 지역을 비롯해 108산사와 108군법당, 53기도도량, 중국 미얀마 등 해외에 분등돼 한반도 평화와 화합의 상징이 되어 왔다. 노덕현 기자


수행바라미 동안거 정진에 참여한 불자들의 모습.

수행바라미 동안거 정진 회향

전체 54강 중 개근 26명, 수료 87명

종단본 〈불교성전〉 보급과 비대면 신행활동 정착을 위해 진행된 '2021 수행바라미 동안거 정진'이 2월 15일 동안거 해제와 함께 회향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이 주최하고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주윤식)가 주관하는 이번 수행바라미 동안거 정진은 조계종 디지털불교대학이 제공하는 강의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강의에는 사찰 · 교구신도회 및 신도단체 · 유관단체의 실무자와 회원 총 108명이 동참했으며, 강좌는 매일 오전 10시, 줌(ZOOM)을 이용한 온라인 강의로 진행됐다. 총 54강으로 총 108명의 동참자 중 87명이 50% 이상 출석하여 수료 자격을 획득했으며, 개근 학생은 26명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우유 배달로 모은 돈, 군포교에 쓰여지길"

이근표 포교사, 1000만 원 기부
20여 년 군포교…"삶의 원동력"



20년간 새벽마다 우유를 배달하며 차곡차곡 모아온 돈을 조계종이 추진 중인 백만원력결집불사 기금으로 전달한 포교사가 있다.

이근표 포교사(65세, 진공 · 사진)는 2월1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백만원력결집불사 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청주 옥산면에서 작은 우유 대리점을 운영하며 오랜 기간 군법당에서 봉사해온 이근표 포교사는 얼마 전 교계 언론을 통해 계룡대 호국 홍제사가 건립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군포교와 미래 불자 양성에 힘을 보태고자 기금 전달에 마음을 낸 것으로 전한다. 이 포교사는 "형편이 안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보시에 뜻을 세우고 준비를 하자고 다짐했다"며 "가족들과 한뜻으로 기도를 하며 매일 차곡차곡 모아온 것이기에 더욱 기쁜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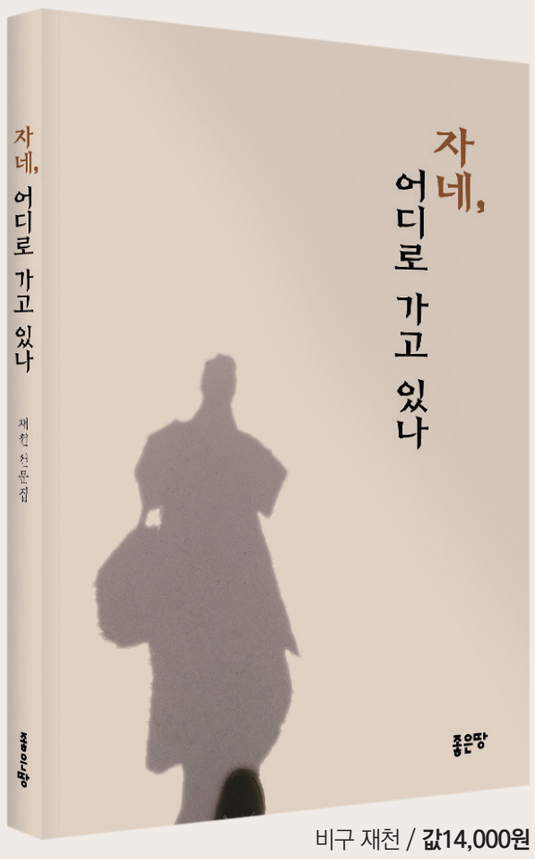
이근표 포교사는 매일 오전 4시면 잠에서 깨어 아내와 함께 새벽기도를 올린다. 기도 후에는 해가 뜨기도 전에 출근, 직접 우유배달에 나선다.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부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한 세월이 벌써 20년이다.

이 포교사가 불교와 인연을 맺은 것은 2004년, 돌아가신 아버지를 제천 정방사에 모시면서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주말마다 정방사를 찾았던 이 포교사는 군법당 법사로 나가던 당시 주지 석구 스님을 따라 군인들을 만나며 군법당 봉사를 시작했다. 전문성을 갖추고 군인들을 위한 일을 하고 싶어 2016년에 조계종 포교사가 됐다. 이 포교사는 "빵과 우유를 가득 채운 트럭을 몰고 일요일마다 군인들을 만나러 가는 일은 한 주의 쉼과 동시에 또 한 주를 준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이근표 포교사는 선방 대중공양도 수년간 이어왔다. 결제 때가 되면 유제품을 트럭에 가득 채워 선방으로 향한다는 이 포교사는 "수행하는 스님들에게 영양소가 가득한 우유를 대접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사실 만으로도 기쁘다"며 "힘들게 번 돈이지만 건강한 신체가 있기에 공양도 올릴 수 있다는 점이 감사할 뿐"이라고 말했다.

전달 당일에도 "대리점에서 가장 비싸고 영양 좋은 우유를 챙겨왔다"며 원행 스님에게 직접 가져온 우유를 선물하기도 한 이근표 포교사는 "불사나 대중공양에 동참한 후에는 항상 일이 잘 풀렸다. 얼마 전부터 작게나마 연금도 받게 됐으니 가진 것들을 더 많이 베풀고 살 것"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임은호 기자

※교보문고, yes24, 네이버 쇼핑 등에 제목을 치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구 재천 / 값14,000원

자네, 어디로 가고 있나

딸꾹질이 자기도 모르게 멈추듯,
일체중생이 하루빨리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 성불하기를 발원하며…

이 책은 「금강경」과 편지글을 항상 지니고 다니며 부처님의 말씀을 전달하던 중, 주위 사람들이 저자의 글을 보고 책으로 엮으면 좋겠다고 하여 정리하여 엮은 글이다.

글의 시작은 해인사 승가대학에 입방하였던 때이다. 입방 후 동안거를 앞두고 무엇을 할까 고민하던 중, 우연히 어느 스님의 「금강경」을 접하게 되었다. 그 경을 보고 더욱 맛나게 기획, 편집하며 평생 공부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하여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다.

이 책은 주로 경전이나 불교 관련 서적을 인용하였는데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다양한 형식을 빌려 쓰고 있다. 시의 형식을 빌린 곳도 있고 길게 풀어서 쓴 곳도 있다. 어려운 한자나 생소한 단어들에는 저자의 해석을 추가해 놓았다. 중간중간 사진을 함께 실어 생동감 있게 볼 수 있다.

저자는 이 책과 인연 닿은 분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데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썼다고 한다.

◈ 인터파크, 교보문고, 영풍문고, 전국사찰서점 판매중 ◈ 1권도 전화주문 가능 : 붓다북(구 운주사) 02-3672-7183 / 법우당 031-945-4535 좋은땅